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고민 깊어지는 이재명

찬성 139·반대 138·무효 11·기권 9...찬성표 많았지만 과반 미달
민주 대거 이탈표 나온 듯...국힘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로" 자평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는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현역 의원이 이 대표를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특히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

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표가 이 대표에게서 등을 돌렸다.

또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정치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데 대해 "오늘 표결 결과가 민주당에 아직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로"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했거나 민주당과 연관 있는 의원 175명, 국민의힘과 또 관련 있는 분들 122명, 이렇게 보면 부표는 137표"라며 "175에서 137을 빼면 최대 38표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기권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질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무 입장

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뒤에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는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나서 여야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 (찬성) 또는 '부' (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 의장은 선관위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을 자신하며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고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결합개발 타당성 보고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최종 승인하고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를 위례·대장동 관련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이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반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막 오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광주·전남 원팀 참여

시스템반도체용 패키징 단지 신청
세계 2위 앰코테크놀로지 합류 예정
K-반도체 핵심 요충지 성장 기대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대전(大戰)이 시작됐다.

광주시에 전남도는 27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유치를 위한 전략기술로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Advanced PKG)'을 선정하고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인천, 경기, 대전 등 그동안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관심을 보여온 사도에서 이번 공모전에 최종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30%)와 비메모리반도체(70%)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굳히고 있는 반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의 핵심인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해 '비메모리반도체' 부문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광주시가 이번에 신청한 '시스템 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은 비메모리 분야 중 하나로, 시스템 반도체 내에는 AI(인공지능) 반도체도 포함돼 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제조공정, 후공정(패키징) 등 3단계로 나눠 완성품이 제작되는데, 광주시는 이른바 반도체를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등 소재로 보호막을 두르고 외부단자와 칩을 연결하는 패키징, 즉 최종 후공정 분야를 적극 육성하는 게 목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계획서를 통해 첨단 1지구와 3지구 일대에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세계 2위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기반을 갖춘 점 등을 내세워 케이(K)-반도체 핵심 요충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서에는 지역 산업 기반시설, 입주 기관 현황, 기회 요인, 특화단지 육성과 중장기 발전 방향, 세부 사업별 실행 계획 등이 꼼꼼하게 담겼으며, 정부 대산공약과 국내 유일의 초광역 반도체 특화단지, RE100(재생에너지 100%)과 원전을 결합한 에너지믹스 실현 최적지, 신속한 부지 확보, 용수와 교통 등 안정적 인프라, 인공지능(AI)·자율차·전력 등 전후방 산업의 이점도 적극 강조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케이(k)-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서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설명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이번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 간 협력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근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차세대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시도민의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원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정하고 같은 해 9월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12월 반도체 인제 양성위원회를 발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김희재·양향자·이용빈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달 초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관과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1절 휴무...1일자 신문 쉽니다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국회 본회의 개정안 가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가

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